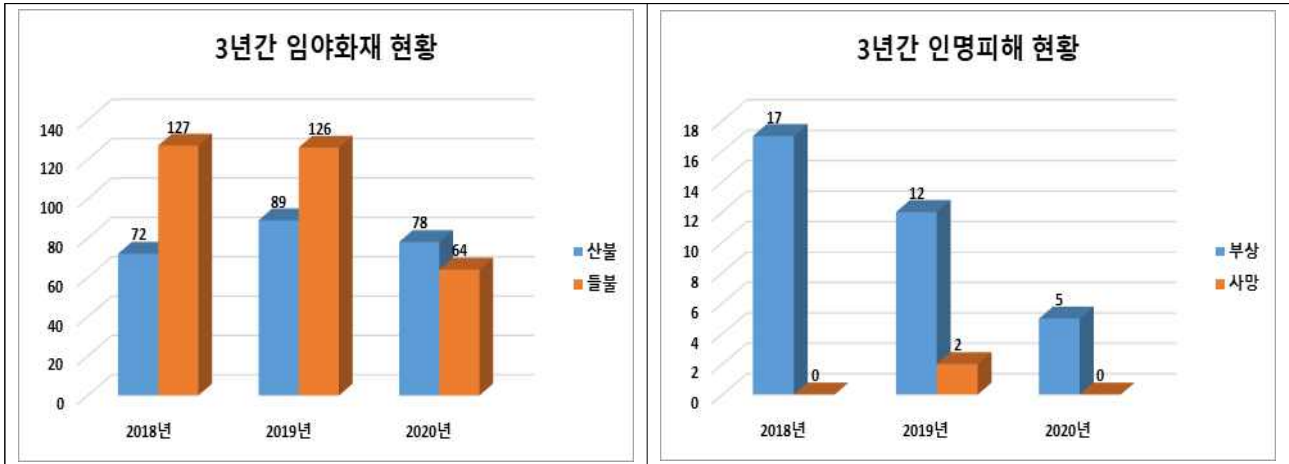


3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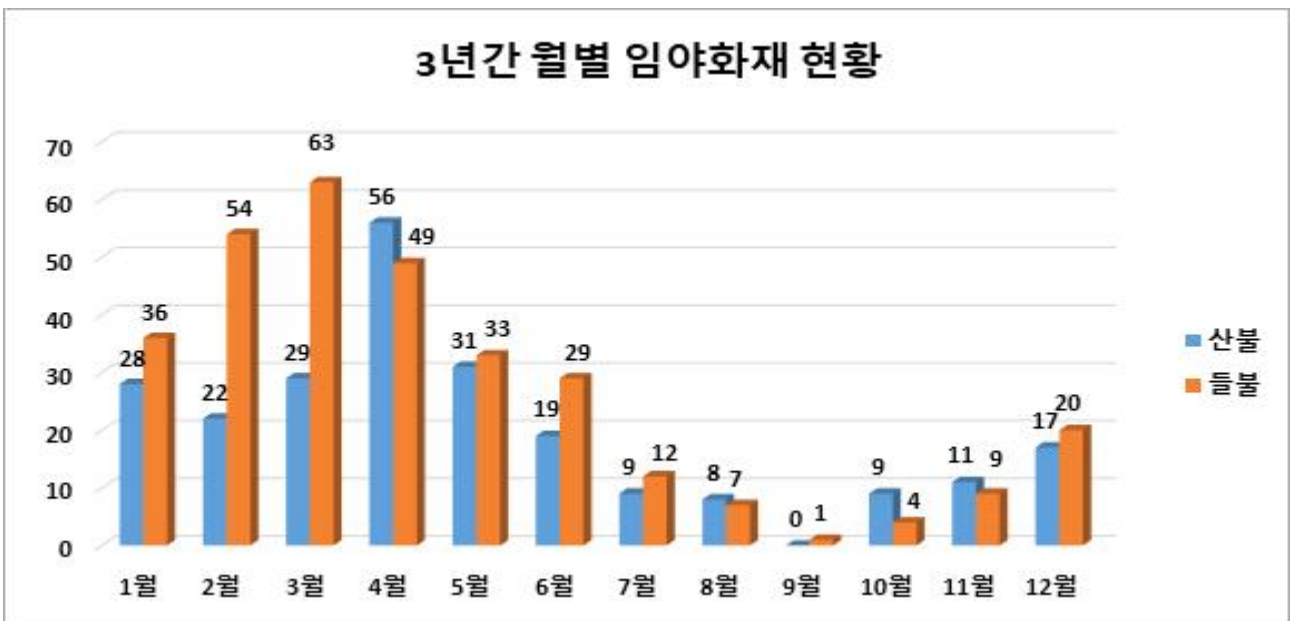
= 봄철 영농기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 주의보 =

□ 임야화재 발생 현황('18년 ~ '20년)



- 3년간 임야화재는 총 556건이 발생하여 200,552,391천원(3,953.2ha)의 재산피해와 36명(사망 2, 부상 34)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임야화재 556건 중 산불이 43%(239건), 들불이 57%(317건)로 나타났으며, '20년도 임야화재는 '19년 대비 발생건수는 34%(73건) 감소, 피해면적은 18%(339.9ha) 감소, 재산피해는 99.9%(194,889,332천원)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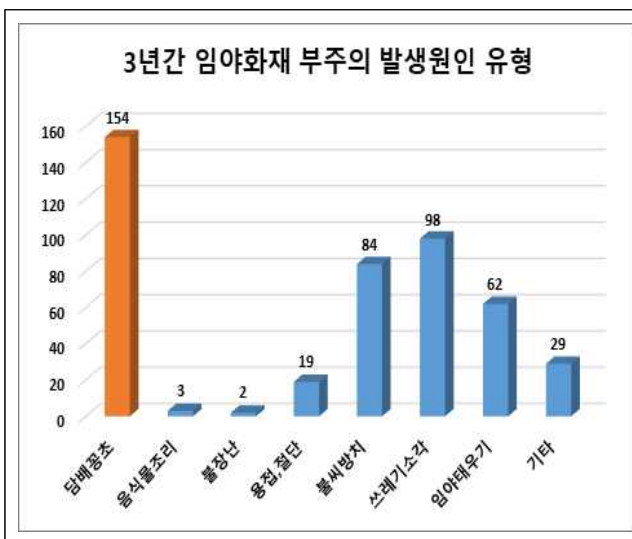
□ 임야화재 월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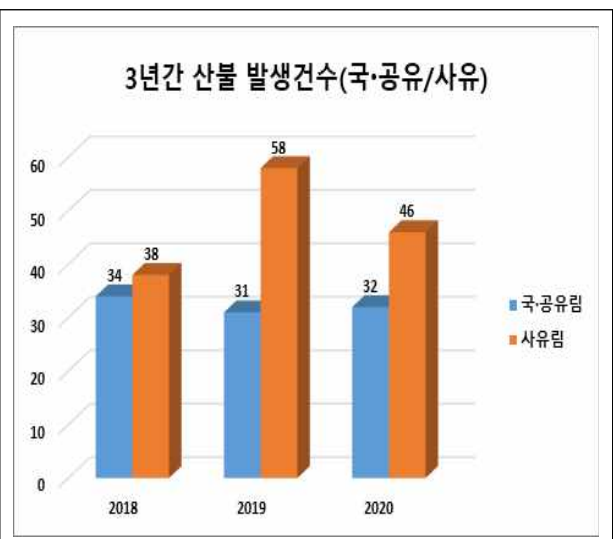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임야화재 월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556건 중 4월 19%(105건), 3월 17%(92건), 2월 14%(76건)로 3월에서 4월 봄철에 가장 집중되었고, 인명피해는 3년간 총 사상자 36명 중 3월에서 5월 기간에 12명(33%)이 발생하였다.

연도별	건수	피해액 (천원)	피해면적 (㎡)	인명피해	
				사망	부상
계	92	4,868,899	3,806,269	-	5
2020년 3월	23	15110	182399	0	0
2019년 3월	36	27673	25230	0	4
2018년 3월	33	4826116	3598640	0	1

- 3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화재 92건 중 산불은 32%(29건)이고, 들불은 68%(63건)로 나타났다. 들불(들판, 과수원 등)은 3년간 총 317건 중 3월에 20%(63건) 발생하였다.('18년 27건, '19년 25건, '20년 11건)
- 산불화재는 3년간 총 239건으로 사유림이 전체의 59%(142건)를 차지했다. 3년간 3월 중에 발생한 산불 29건 중 국·공유림 24%(7건), 사유림 76%(22건)으로 나타났다. '20년 3월 산불화재 12건 중 사유림이 75%(9건)를 차지했다.
- 임야화재 발생원인은 담배꽂초, 쓰레기 소각, 불씨방치, 임야 태우기 등 부주의가 전체의 81%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

[3년간 임야화재 부주의 유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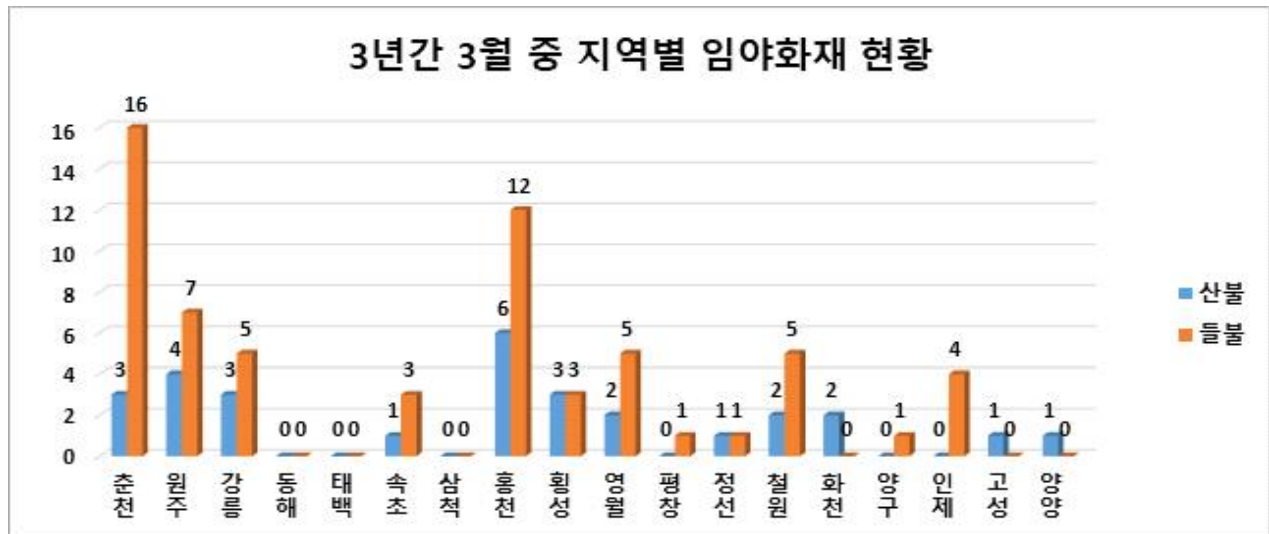


[3년간 산불발생 현황]

□ 지역별 임야화재 발생

연도별	건수	지 역 별																	
		춘천	원주	강릉	동해	태백	속초	삼척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계	92	19	11	8	0	0	4	0	18	6	7	1	2	7	2	1	4	1	1
2020년 3월	33	7	5	3	0	0	1	0	4	2	3	1	1	4	0	0	1	1	0
2019년 3월	36	10	2	4	0	0	3	0	10	1	3	0	0	0	0	0	3	0	0
2018년 3월	23	2	4	1	0	0	0	0	4	3	1	0	1	3	2	1	0	0	1

○ 3월 중에 발생한 92건의 임야화재 중 춘천이 21%(19건)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홍천 20%(18건), 원주 11건, 강릉 8건, 영월·철원 7건, 횡성 6건, 인제·속초 4건, 정선·화천 2건 등 순이었다.



- 3월 중 임야화재의 종류별·지역별 발생률을 분석해 보면,
 - 산불은 홍천 21%(6건), 원주 14%(4건), 춘천·강릉·횡성 10%(3건), 영월·철원·화천 7%(2건), 속초·정선·고성·양양 3%(1건) 순이었고, 동해·태백·삼척·평창·양구·인제는 3년간 3월 중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 - 들불은 춘천 25%(16건)로 가장 많았고, 홍천 19%(12건), 원주 11%(7건), 강릉·영월·철원 8%(5건), 인제 6%(4건), 속초·횡성 5%(3건), 평창·정선·양구 2%(1건) 순이었고, 동해·태백·삼척·화천·고성·양양은 3년간 3월 중 들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-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4월까지 들불화재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논·밭두렁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.

□ 봄철 산불예방(안내문)

-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.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 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,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.
-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급전한 지역의 논·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,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산행 중 산불발견 시 대처요령

- 산불 발견 시 119, 산림관서, 경찰서로 신고한다.
-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.
-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-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대피 장소는 저지대, 연료가 없는 지역, 도로,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.
-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,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기다린다.

□ 산불예방 참여요령

-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,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.
- 입산 시에는 성냥,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.
-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.
- 성묘,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.
-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,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.
-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, 산불조심을 당부한다.
-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.